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언론보도 내용, 부산체육 특특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Q

→

+

카톡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생활
5% 할인
간편결제/CU/GS25/스타벅스

의료
10% 할인
병원/약국/안경

체육시설
10% 할인
부산시체육회 지정 시설

스포츠
10% 할인
골프/스포츠/레저 업종

학원
5% 할인
학원/강습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함께하는
**부산체육
사랑카드**

부산시체육회 지정 체육시설 10%,
월 최대 1만5천원 할인!
스포츠, 의료, 학원 등 생활 곳곳에서
할인 챙기세요!

연회비
국내전용(BC) 1만원
(기본 연회비 없음, 제휴 연회비 1만원)

카드 자세히 보기

부산광역시체육회 × BNK 부산은행

[필수 안내사항]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신용점수 등 낮음)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환 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최대 3%p, 법정최고금리(20%) 이내 (단, 연체발생 시점에 약정 금리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합니다.) -일시를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적용 *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 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또는 부산은행 고객센터 (1588-62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4-1868 (심의일자 2024.10.17) 유효기간: 2024.10.25 ~ 2025.10.24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24-C1d-13136호(2024.10.25 ~ 2025.10.24)

부산체육 2024. 12 Vol. 73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부산광역시체육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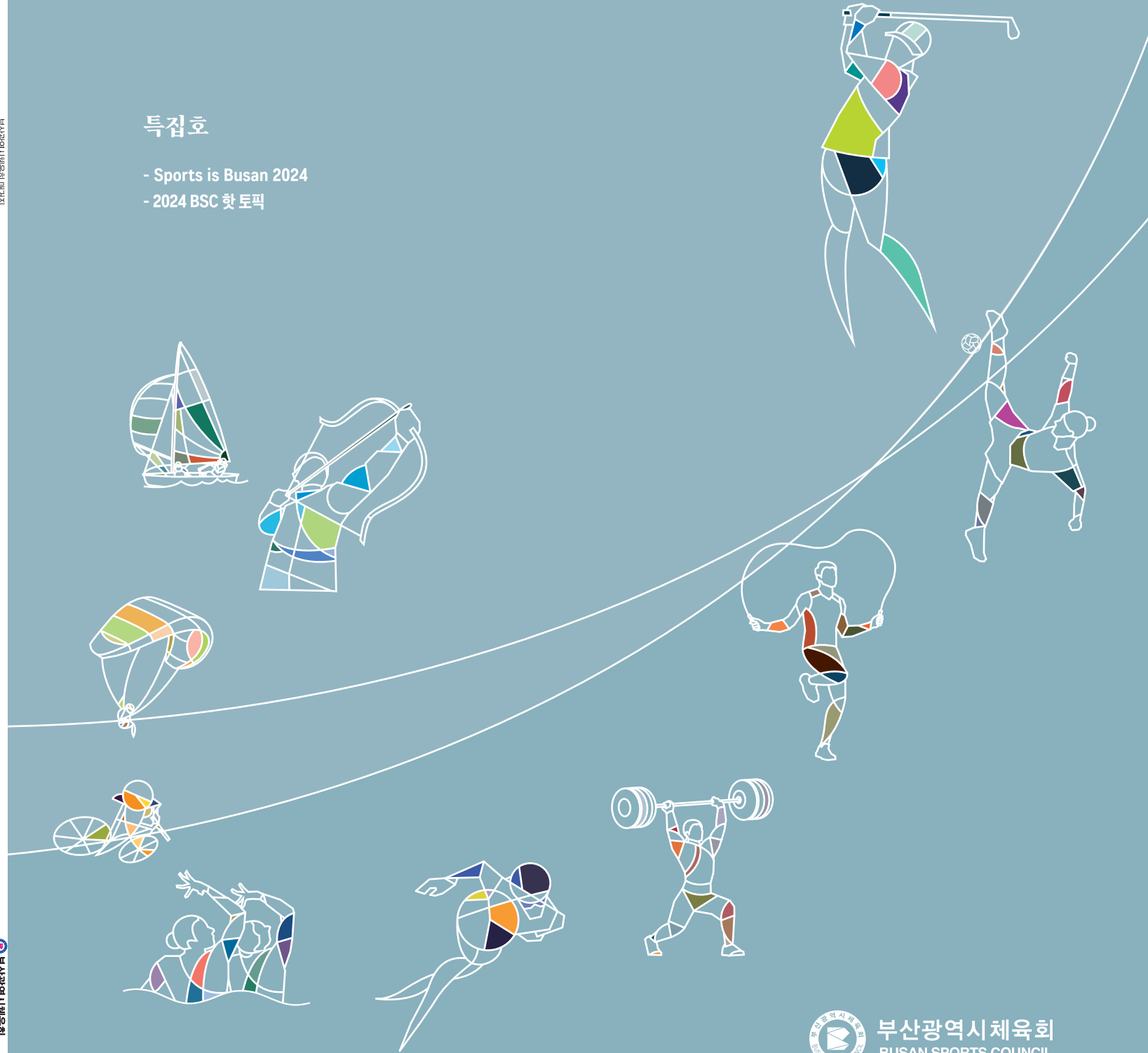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Vol. **73**
2024. 12

특집호

- Sports is Busan 2024
- 2024 BSC 핫 토픽



부산광역시체육회
BUSAN SPORTS COUNCIL

부산체육

부산광역시체육회 매거진
Busan Sports Council Magazine
2024. 12 Vol. 73



발행일 2024년 12월 13일
(월간, 비매품, 통권 제73호)
발행인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장인화
편집인 신현기
편집·취재 정종욱, 문찬식, 김성무,
김도희, 유동호
발행처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 77
(T. 051-500-7900)
기획·제작 효민디앤피



※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채널에서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CONTENTS

Sports is Busan 2024

- 06 Sports is Busan 2024
-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 2024 파리올림픽
 -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 28 2024 부산체육을 돌아보며
- 되짚어보는 2024 부산체육 ①
 - 되짚어보는 2024 부산체육 ②
 - 되짚어보는 2024 부산체육 ③

2024 BSC 핫 토픽

- 42 2024년 부산체육 주요성과
- 2023년 전국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 부산광역시체육회 1위 달성
 - 부산광역시 관내 스포츠팀 창단
 - 신평장림체육관 신규수탁 운영
 - ‘부산광역시체육회’ 공공체육시설 수탁운영을 통한 생활체육-전문체육 선순환 발전시스템 기틀 마련

- 48 2024년 부산체육 공모사업
- 지정스포츠클럽 대상 공모 사업 국비 9억 5백만 원 확보
 - 「2024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 사업 국비예산 확보
 - ‘2024년 과학적 스포츠영재 육성사업 운영 주체 공모’ 사업 선정

- 51 2024년 부산체육 지원
- 한일고등학교 태권도 품새단 창단 지원금 전달
 - 한국거래소, 부산 지역 체육꿈나무 장학금 6천만 원 전달
 - 「2024 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 성료
 - 운영이익금 활용 테니스종목 전국 동호인 대회 및 관내 테니스 육성 학교 운영지원금 전달

- 56 기타
- 부산광역시체육회 - (주)어썬스타 공식후원사(Sponsor) 업무협약 진행
 - 부산광역시체육회 - 하이커우시 청소년스포츠교류 MOU 체결

The background is a solid teal color with a complex, abstract pattern of overlapping circles and rings in various shades of yellow, green, and brown. These patterns are concentrated in the corners and along the right side, creating a sense of depth and movement.

Sports is Busan 2024



한국 탁구 100주년, 사상 첫 국내 개최

BNK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24년 2월 16일, BNK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개막했다. '사상 첫 국내 개최'라는 타이틀 덕분에 대회에 참가한 대표팀 선수들은 물론 대회개최지 부산 시민들의 관심과 열기가 자못 뜨거웠다.

당초 한국은 2020년 부산대회 개최권을 확보했으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대회가 취소되는 불운을 겪었다. 하지만 불운은 복으로 돌아왔다. 대한민국에 탁구 종목이 도입된 지 100주년 되는 해인 2024년에 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올림픽을 제외하고 단일 종목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대회다. 국제탁구연맹(ITTF)에 가입

한 나라는 227개국으로 모든 종목 통틀어 가장 많다. 대회가 열리는 도시의 홍보효과를 5,000억 원대로 추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나 의미가 큰 대회인 만큼 개최권 확보 이후에는 유승민 대회 공동조직위원장(대한탁구협회장)과 김택수 대회 사무총장(협회 부회장·미래에셋증권 총감독), 현정화 대회 집행위원장(한국마사회 여자팀 감독) 등 수뇌부는 개막을 200일 앞둔 9월부터 부산에 상주하며 대회 내실을 다졌다. 대회가 열린 벅스코 특설 경기장은 스포츠 대회를 연적 없는 문화 공간인 탓에 대대적인 '경기장화'도 진행해야 했다. 부산시는 대규모 관람객이 실내에 밀집하는 상

항에 대비해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참가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방, 안전 분야를 필두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식·음료 수송, 의료, 관광 등을 지원하며 '사고 제로' 안전대회를 목표로 했다.

만리장성 넘지 못했지만 한국 탁구 가능성 보여

세계탁구선수권은 홀수 해에는 개인전, 짝수 해에는 단체전을 치른다. 팀당 엔트리는 5명, 남녀 모두 3인 5단식(11점 5게임)제로 치러진다. 한국대표팀은 박규현, 안재현, 장우진, 임종훈, 이상수(이상 남자팀), 윤효빈, 이은혜, 신유빈, 전지희, 이시온(이상 여자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남자팀은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장우진과 임종훈을 앞세웠고 여자팀은 에이스 신유빈과 전지희를 필두로 메달 사냥에 나섰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열린 항저우 아시

안게임 여자 복식에서 한국 선수로는 21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해 대회 기간 내내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국가대표팀은 아쉽게도 만리장성을 넘지 못했다. 남자대표팀과 여자대표팀 모두 전승을 기록하다 각각 4강과 8강에서 중국에 패하며 고배를 마셨다. 남자대표팀은 24일 열린 준결승에서 세계 최강 중국과 폴세트 접전 끝에 매치 스코어 2:3으로 역전패했다. 비록 경기는 졌지만 세계 랭킹 1, 2, 3위가 버티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대등한 경기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중국이 남·여 모두 휩쓸며 탁구 최강국임을 드러냈지만 개최국인 한국이 남자 단체전 동메달, 여자 단체전 8강으로 33회 파리올림픽 단체 출전권을 따냈다. 남자 대표팀 장우진 선수(세계랭킹 14위)는 "한국 탁구가 중국에 안 된다는 인식은 깨뜨린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고 신유빈을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은 다음 대회에서의 설욕을 다짐했다.



호평 속 대회 성료

47개국 80개 팀 2,000여 명 선수가 참가한 대회는 성황리에 종료됐다. 2025, 2026년 개최지인 카타르 도하와 영국 런던에서 유 위원장에게 이번 대회의 운영 지침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보내올 만큼 대회는 국제적 호평을 받았다. 평일 경기가 많았음에도 3만 명 이상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은 것은 물론 인근 백화점 매출이 전년 대비 600% 증가했고 숙박업소에는 빈 방을 찾기 힘들 정도로 호황을 누렸다. 유 위원장은 “이번 대회가 흥행을 넘어 한국 탁구의 저력을 알리고 국내 탁구 인기 상승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대회 성료를 위해 애써준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뜻을 내

비쳤다. 아울러 대한탁구협회는 앞으로도 계속 국제대회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격년으로 개인전과 단체전을 치르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개인전 개최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지속적인 대회 유치를 위한 정식 탁구전용 체육관 건립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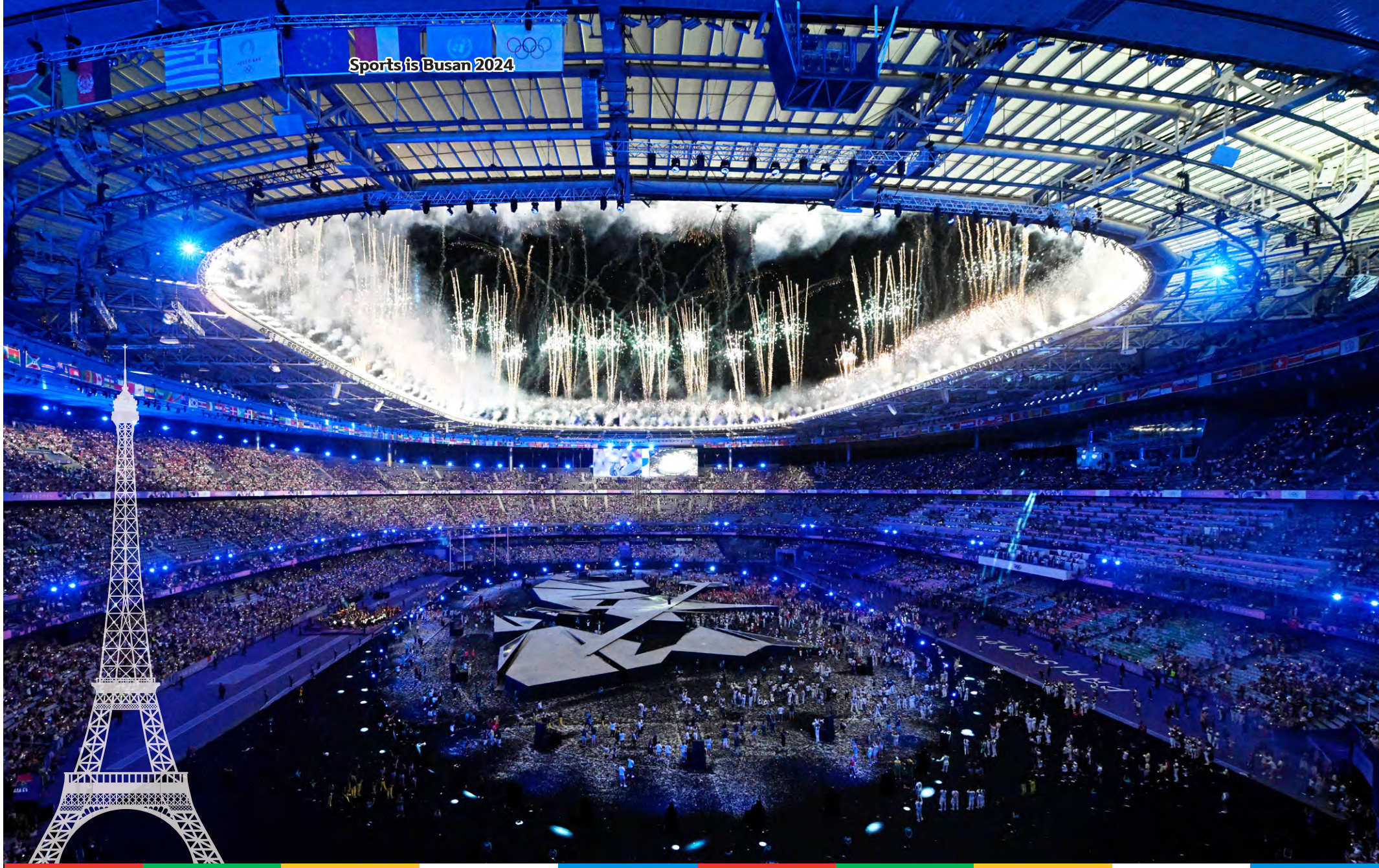
양재생 대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컨벤션센터로 지어진 벅스코에서 대형 스포츠 행사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쾌적한 환경에 최신 영상·음향 시스템으로 관객이 경기를 생동감 있게 관람할 수 있었다”면서 대회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 탁구 도입 100주년을 기념하며, 대한민국 최초로 개최된 이번 대회가 부산 시민들의 열렬한 관심과 지지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메가 스포츠대회 부산 유치와 더불어,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봉쇄로 지역 관광산업이 위축됐으나,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부산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이 부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게 돼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바람도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 기간에는 엘리트 선수들의 경기뿐만 아니라 생활 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연계행사로 국제탁구연맹 회장배 유소년·생활체육대회도 동시에 열렸고 2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국제탁구연맹의 이사회 등 ITTF 서밋을 개최하는 등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역량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ITTF 이사회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가 ‘2026 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유치를 확정하게 되면서 부산 대회의 유산이 강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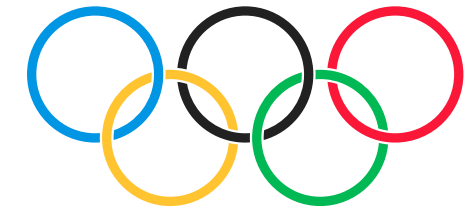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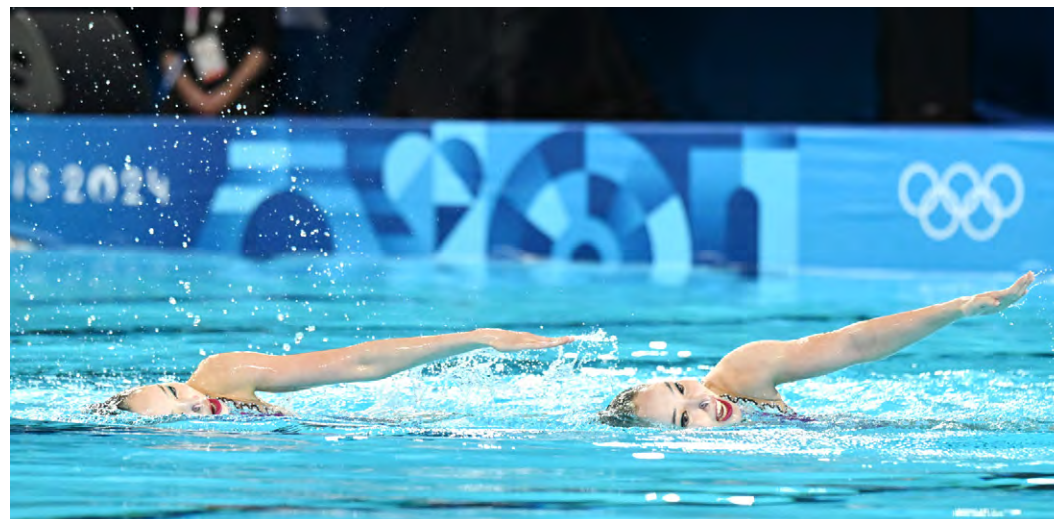


2024 파리올림픽

폭염보다 뜨거웠던 부산선수단의 열기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함께 파리에서 대한민국을 빛낸 선수들이 귀환했다.
2024 파리올림픽 32개의 메달로 최종 순위 8위를 달성한 대한민국!
피땀 흘린 선수들의 그간의 여정을 돌아본다.



작지만 강하다! 파리에서 펼쳐진 대한민국의 금빛 여정

제33회 파리올림픽은 그야말로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준 무대였다. 구기 종목의 부진과 역대 최소 인원 출전으로 많은 우려 속에 막을 올렸던 이번 대회에서, 선수들은 기대 이상의 성과로 새 역사를 써내려갔다. 22개의 종목에서 총 144명이라는 역대 최소 인원의 선수만이 출전해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총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은 최종 순위 8위를 기록했다. 이는 단일 대회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성적이며, 해외에서 열린 올림픽에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더불어 역대 최다 공동 1위다. 대한체육회가 내세운 '금메달 5개, 종합 순위 15위'라는 목표를 훌쩍 뛰어넘는 대단한 성과였다.

특히 이번 파리올림픽은 저탄소·친환경 대회를 지향한 만큼 선수촌에 에어컨조차 설치되지 않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 치러졌다. 결국 선수들은 뜨거운 폭염 속에서 창문을 열고 생활해야 했으며 이러한 고군분투 속에서 이뤄낸 성과는 단지 숫자로 표현되는 기록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파리에서 빛난 부산의 영웅들, 영광의 귀환!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부산 출신 및 부산 연고팀 소속 선수들의 활약이 특히 눈부셨다. 총 23명의 부산 선수들이 8개의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하며 총 6개의 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특히 '낭만 있게 끝내고 싶다'는 출사표를 던졌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는 부상 투혼 끝에 값진 금메달을 따내며 큰 감동을 선사했다. 김원호 선수는 정나은(화순군청) 선수와 함께 혼합복식에서 16년 만에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배드민턴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사격의 박하준 선수는 금지현(경기도청) 선수와 합작으로 사격 혼성 10m 공기소총 결선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면서 이번 파리올림픽 메달 획득의 첫 주인공이 되었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보여드리겠습니다"는 박하준 선수의 남다른 결의는 앞으로의 도전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다. 탁구의 임종훈 선수는 신유빈(대한항공) 선수와 함께 혼합복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탁구 선수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이처럼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귀환한 부산 선수단을 환영하고 격려하기 위해, 지난 8월 19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린 리셉션에는 아티스틱스위밍 이리영(부산수영연맹) 선수와 요트 하지민(해운대구) 선수를 비롯한 총 11명의 선수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파리올림픽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모습은 부산 시민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줬다”며 선수들을 격려했고, 부산 연고 선수들의 기량을 더욱 높이기 위한 지원 강화를 알렸다.

전설의 별과 떠오르는 새별, 지켜냈고 떠올랐다

대한민국에서는 꾸준히 효자노릇을 하는 종목이 있다. 바로 5개의 금메달을 쓸어 담은 양궁이다. 심지어 여자 단체전은 1988 서울 올림픽을 시작으로 10연속 우승을 달성하였고, 김우진 선수와 임시현 선수는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단체전을 모두 휩쓸어 3관왕에 올라 양궁 간판 타이틀의 위엄을 증명해냈다.

계속해서 전설을 써내려가는 한국 양궁과 함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은 종목은 사격이다. 양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메달을 획득하며 깜짝 활약이 돋보였다. 게다가 역대 한국 하계 올림픽 100번째 금메달, 한국 최연소 금메달, 역대 올림픽 여자 사격 최연소 금메달 등의 타이틀을 모두 거머쥔 만 16세의 반효진 선수는 앞으로의 사격 미래를 밝게 하는 데에 충분했다.

이외에도 25m 권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양지인 선수와 여자 공기권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오예진 선수, 은메달 김예지 선수 모두가 프랑스 사격의 본거지인 샤토루를 한국 사격의 성지로 만들어내며 영광의 막을 내렸다.

희망의 불씨 밝힌 비인기 종목 선구자들의 여정

활, 총, 칼을 향한 주목이 뜨거울 때,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있다. 12년 전, 박현선과 박현하 자매가 런던 올림픽에 출전한 이후로 대한민국 수영은 긴 침묵 속에 머물렀다. 하지만, 허윤서·이리영 선



수가 “한국 아티스틱스위밍의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라는 강인한 포부와 함께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며 그 침묵을 깼다. 이들은 듀엣 종목에서 13위를 기록하며 한국 아티스틱스위밍의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물속에서 펼친 하나의 예술 같은 연기는 전 세계에 한국의 가능성을 증명해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을 포함해 5회 연속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요트의 하지민 선수는 최종 26위로 아쉽게도 결선의 문을 열진 못했다. 하지만 7차 레이스에서 깜짝 1위를 달성함으로써 한국 요트 단일 레이스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하지민 선수는 “경기에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기여라 생각한다”며, 자신을 향한 집중의 눈이 적음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승부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부족한 불모지 종목 선수들의 노력은 금메달 성취에 버금가는 감동을 선사했다.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다, 계속 전진하는 대한민국!

여러 악조건 속, 많은 우려를 안고 막을 올린 2024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총 32개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8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소위 메달밭이라 불리는 기초 종목(육상, 수영, 체조)에는 아쉬움이 남지만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선수들이 분전하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의 힘을 당당히 증명한 무대가 되었다. 한국 선수단 유일 구기종목으로 출전했던 여자 핸드볼 팀은 본선 진출의 문은 열지 못했지만, 세계선수권 6위인 독일을 꺾으며 향후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 선수들의 절대 기죽지 않는 강인함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으며, 대한민국 스포츠의 화력은 더욱 강해졌다. 이 모든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두려울 것이 없는 대한민국 선수들은 앞으로도 계속 전진하며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4년 후, LA 올림픽에서도 우리 선수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오길 기대한다.

부산, 8년 만에 종합 6위 쾌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THE 105TH NATIONAL SPORTS FESTIVAL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김해에서 펼쳐진 제105회 전국체전이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에서 부산 선수단은 단체 종목과 개인 종목 모두에서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치며 목표였던 종합 7위를 넘어 종합 6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다.



체전을 뜨겁게 달군 신기록의 향연

2024년 전국체전에서는 신기록 행진이 이어지며 역대급 기록이 쏟아졌다. 대한체육회 집계 결과, 이번 대회에서는 세계 신기록 1개, 세계 타이기록 1개, 한국 신기록 16개, 한국 타이기록 1개 등 무려 192개의 신기록이 달성되었다. 이는 지난해의 두 배에 달하는 기록이다.

특히 신명준(23·경기도청)은 지난 12일 대구체고 수영장에서 열린 핀수영 남자 일반부 호흡잠영 100m 종목에서 30초97의 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에 빛나는 임시현(21·한국체대)도 60m 종목에서 세계 타이기록인 355점을 기록하며 그 실력을 입증했다.

이처럼 신기록이 쏟아진 배경에는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세계적인 기량을 갖춘 선수들의 출전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참여가 다른 선수들에게도 동기 부여가 되어 기록 경신을 이끌어 낸 것이다.

다관왕을 차지한 선수 역시 지난해보다 37명이 늘었다. 수영의 황선우(21·강원특별자치도), 체조의 신솔이(20·강원도체육회) 등 2명이 5관왕에 올랐으며, 총 206명의 선수가 다관왕에 이름을 올리며 대회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부산 체육의 새로운 전환점

부산 선수단은 이번 대회 다양한 종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세팍타크로에서는 7년 연속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명실상부 세팍타크로 대표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부산체고는 2년 연속 전국체전 남녀 동반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체전 역사상 같은 학교가 동일 종목 단체전을, 그것도 두 번씩이나 석권한 첫 사례가 되었다.

동명대 축구부는 남자대학부 8강전에서 중원대를 이기며, 창단 후 처음 참가한 전국체육대회에서 준결승에 진출하여 동메달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를 통해 부산시체육회는 남자대학부 축구 대회에서 무려 21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부산 선수단의 빛나는 활약

이번 대회에서 부산 선수단은 총 49개 종목에 참가해 187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금메달 54개를 획득하며 2016년 충남 대회 이후 8년 만에 최고 득점을 기록했고, 6대 광역시 중 1위 자리를 2년 연속으로 지키게 되었다.

부산 선수단은 배드민턴, 요트, 에어로빅힙합, 세팍타크로 종목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들 종목에서의 활약 덕분에 종합 6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금메달이 쏟아진 육상(5개), 에어로빅힙합(5개), 레슬링(5개), 핀수영(4개)도 부산의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이 밖에도 태권도에서 금메달 3개, 복싱, 다이빙, 골프에서 각 2개의 금메달을 따내며 종합 순위를 끌어올렸다.

또한, 부산 선수단 중 12명이 이번 대회의 다관왕에 올랐다. 역도의 김수현과 핀수영의 서의진은 3관왕을, 배드민턴, 다이빙, 에어로빅힙합, 골프 등 다수 종목에서 선수들이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한정된 예산과 열악한 체육시설에도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친 우리 선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같은 성과는 시체육회와 종목단체 간 원활한 소통과 협업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의 균형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과학기술대 야구부는 창원에서 열린 준결승전에서 영남대를 8-1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 창단 4년 만에 전국체전 결승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과기대는 매년 프로구단에 졸업생들을 입단시키며 대학 야구의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소프트테니스에서는 13일 신안동복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개인 복식 경기에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김만열과 이도근이 우승하며, 무려 39년 만에 부산에 소프트테니스 금메달을 안겼다.

골프 종목에서는 학산여고 성아진의 뛰어난 기량을 바탕으로,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여자 일반부 개인전과 단체전 동반 우승이라는 겹경사를 맞았다.

성화의 불꽃, 부산으로

7일간의 열띤 경기를 마친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17일 오후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폐막식은 선수단과 도민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적 발표, 시상, 폐회식, 대회기 전달, 성화 소화, 축하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성화대 공간을 활용한 독특하고 입체적인 무대는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전략 기지인 경남의 미래 비전을 담아냈다.

이날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환송사에서 “모든 경기 한순간 한순간이 선수와 관람객, 국민이 함께 울고 웃는 감동의 드라마였다”며 “반목과 갈등, 분열이 만든 단단한 벽을 허무는 화합과 존중의 한마당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또 선수단을 향해 “후회 없는 승부의 시간이었길 바라며, 경남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과 함께 모두 무사히 돌아가길 바란다”며 응원을 보냈다. 이어 박 지사는 전국체전 대회기를 차기 개최지인 부산시 김광희 미래혁신부시장에게 전달했다.

성화 소화 공연에서는 ‘미래를 향한 환희’라는 주제로, 밴드 곡에 맞춰 등장한 무용수들이 각 종목의 인상 깊은 장면을 몸짓으로 표현해 7일간의 선수들의 열정을 재현했다. 무용수들은 소화된 성화의 빛을 모아 차기 개최지인 부산광역시에 전달하며 앞으로도 계속될 체육대회의 연결성을 표현했다.

제106회 전국체전은 내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전은 내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아시아드주경기장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내년 전국체육대회는 ‘스포츠 천국 도시 부산’의 역량을 증명할 중요한 기회로, 올해의 좋은 기운을 이어서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산선수단 23년 만에 최다 메달 획득!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지난 5월 25일(토)부터 28일(화)까지 나흘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치러진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36개 종목 12,153명의 선수, 6,604명의 임원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부산선수단은 23년 만에 최다 메달을 획득하고 당당히 귀환했다.



대회의 주역들

부산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수영, 축구, 골프, 육상, 양궁, 복싱, 태권도, 테니스, 펜싱, 레슬링 등의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수영 종목에서는 대회 기간 내내 도합 20개 가까운 메달을 획득하며 부산선수단의 성과를 견인, 부산 수영의 진면목을 자랑해 보였다.

한동안 부진했던 단체 종목에서도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축구 남중부 부산아이파크 U15 낙동중은 결승까지 4경기를 치르는 동안 14득점 1실점으로 압도적 경기력을 뽐내며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

남자 초등부에 출전한 부산해운대FC U12팀은 결승에서 경북 포항 스틸러스 U12 포천초등학교와의 대결에서 2-3으로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골프 종목에서는 마지막 날 한 번에 메달 4개(금 2, 은 2)를 획득했다. 남중부 손제이·김태휘(동아중)·박한솔

(센텀중)이 2라운드 합계 288타로 금메달을 획득했고 여중부 윤다감(동아중)·김규빈·윤규리(학산여중)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아울러 펜싱 단체전에선 기대 이상의 선전을 펼친 선수들이 은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추가했고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지 않은 공공스포츠클럽 선수들도 금 2개, 은 1개, 동 2개 등을 수확하는 성과를 올렸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박정록 인성체육급식과장은 “예년에 비해 단체 종목에서 선전한 선수들 덕분에 근래 가장 많은 메달을 수확할 수 있었다”며 선수들 노력에 박수를 보내면서 “올해는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의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만큼, 이 선수들이 성장해 내년 대회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6개, 은메달 30개, 동메달 47개 총 93개 메달을 획득하며 부산 스포츠의 미래를 밝혔다.

부산 선수단 '종합 5위' 목표 달성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결산

동계 스포츠 선수들이 꿈의 날개를 펼쳤던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지난 2월 25일에 일정을 끝맺었다.

부산 선수단은 '종합 5위'를 달성하며

다시 한번 동계 스포츠의 저력을 입증하였다.

부산, 17년 연속 종합 5위 달성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진행되었던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선수들의 열정과 사람들의 성원 속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8개 종목, 5개 종별, 961개 세부경기가 진행되었으며, 19개 시·도선수단 4,278명이 참가하여 대회를 빛냈다.

부산 선수단은 6개 종목(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컬링, 산악)에 250명(선수 168명, 임원 82명)이 참가하였다.

대회 종합 순위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메달 합계 287개(금 97, 은 94, 동 96), 총득점 1,461점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였고 서울특별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에 이어 부산은 총득점 443점으로 종합 순위 5위에 올랐다. 이로써 부산은 무려 17년 연속 전국동계체육대회 종합 순위 5위라는 기록을 달성하게 되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의미 있는 기록들도 쏟아졌다. 빙상 종목에서 총 17건(쇼트트랙 11건, 스피드 6건)의 신기록을 달성하였으며, 크로스컨트리 종목에서는 3명의 선수가 5관왕에 등극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4관왕 10명, 3관왕 20명, 2관왕 73명이 나왔다.



스키 종목에서 눈부신 선전

부산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총 32개(금 8, 은 10, 동 14)의 메달을 획득하였는데, 그중 17개 메달(금 8, 은 3, 동 6)이 크로스컨트리에서 나왔다.

여자 일반부 이의진 선수와 여자 고등부 허부경 선수가 4개(클래식 5km, 프리 10km, 스프린트 1.2km, 복합)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자 일반부 정종원 선수가 2개의 은메달과 3개의 동메달을 획득하였다. 크로스컨트리 같은 경우 지난 전국체육대회에서도 12개의 메달을 획득한 바, 이번 대회에서 또 한 번 그 저력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스키팀 윤설호 감독은 광남초등학교 스키부가 대한체육회 학교 운동부 창단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원금을 받은 것이 부산 스키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장비 구입 및 훈련비 활용 등에 큰 도움이 되었고, 학교에서 체육 회로 이어지는 학교·실업팀 체육 시스템이 메달을 수확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여기에 스키알파인 강영서 선수가 4개의 은메달을 획득하였으며, 이외에도 스노보드(은 1, 동 2), 산악(은 1), 빙상쇼트트랙(동 3), 빙상 피겨(동 2), 컬링(동 1) 등 다양한 종목에서 수상을 거두었다.

대회가 열리는 동안 폭설이 내리는 등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 덕분에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더욱 뜻깊게 마무리되었다.





함께 만들어가는 감동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생활체육을 통해 국민행복을 도모하고 지역·계층 간 화합에 기여하는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28일(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시·도 선수단 및 임원 2만여 명이 참가해 41개 종목에서 각축전을 벌였다.

4월 26일(금) 오후 5시 30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마쳤고 같은 날 오후 8시에는 부산 선수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회가 열렸다. 이후 선수단은 울산종합운동장 등 60개 경기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부산 선수단은 이번 대축전에 35개 종목 1,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학기공·그라운드골프·배드민턴·수중핀수영·우슈·체조 등 6개 종목에서 종합순위 2위, 수영·스쿼시·육상·철인3종 등 4개 종목에서 종합 3위에 올랐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5월 30일(목) 오전 부산선수단 해단식에서 이들 종목 회장과 실무자에게 표창패를 수여하고 부산 선수단 중 최고령 참가자와 최연소 참가자에게 부상을 전달했다. 최고령 참가자는 소프트테니스 종목의 1932년생 박기수(남) 동호인과 당구 종목의 1937년생 박하자(여) 동호인이며, 최연소 참가자는 수영 종목의 2017년생 정선율(남) 동호인과 2016년생 박주예(여) 동호인이다.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은 “종목별 고루 좋은 성적을 거둔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의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부산 선수들의 페어플레이 정신과 스포츠맨십을 통해 스포츠 도시 부산의 면모를 드높인 대회였다”고 말하며 참가 선수들의 스포츠 정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회개요

- 목적 :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행복 도모, 지역·계층 간 화합 기여
- 기간 : 2024.4.25.(목)~4.28.(일), 4일간
- 장소 : 울산광역시 일원
- 참가인원 : 2만여 명(시·도 선수단 및 임원)
- 주최 : 대한체육회, 울산광역시
- 주관 : 울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 경기종목 : 41개 종목

경기종목: 정식 종목 41개

검도, 게이트볼, 골프, 국학기공,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롤러,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사격, 산악, 소프트테니스, 수영, 수중핀수영, 스쿼시,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합합, 요트, 우슈, 육상, 자전거, 족구, 줄넘기, 철인3종, 체조, 축구(풋살 포함), 탁구, 태권도, 태권,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합기도, 핸드볼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10월 5일과 6일, 양일간 펼쳐진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강서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스포츠로 하나 되어 즐긴 축제

생활체육 저변을 넓히고 동호인들의 화합을 도모하며, 다채로운 볼거리로 부산 시민이 사랑하는 축제 자리 잡은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시민들을 찾아왔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행사는 지난 10월 5일 오후 5시, 강서체육관에서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생활체육 동호인과 시민 등 4,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고신대학교 태권도시범단과 국가대표 댄스스포츠, 롯데디자인츠 치어 리더의 역동적인 퍼포먼스가 축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각 구·군의 슬로건, 특산품, 마스코트들이 등장한 개성 넘치는 입장 퍼레이드가 보는 이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어 공정한 경기와 스포츠맨십을 다짐하는 선수대표의 선서가 진행되었다.

박형준 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산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과 함께 오렌지색 배구공을 힘차게 날리며 부산 체육의 도약을 응원했다. 전야제의 피날레는 가수 조항조와 이찬원 등의 화려한 축하 공연으로 장식되며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강서구청, 강서경찰서, 강서소방서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한 덕분에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전야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시민들의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부산

2일 차인 6일에는 배구, 축구, 탁구, 체조 등 16개 종목에서 3,000여 명의 선수들이 구·군을 대표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파크골프, 게이트볼, 국학기공 등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종목들도 진행되어 시민들에게 폭넓은 생활체육의 매력을 선사했다. 더불어, 대회가 열린 체육관 일대에서는 ‘풋켓볼’, ‘대형 젠가 게임’, ‘가상현실(VR) 스포츠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의 종합우승은 사하구체육회가 차지했으며, 해운대구체육회와 연제구체육회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또한, 전야제 입장 퍼레이드에서는 강서구체육회가 질서상, 영도구체육회가 화합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체육대회 운영 우수단체로는 탁구협회와 체조협회가 선정되어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은 “제45회 부산시민의 날을 맞아 개최한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부산시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시민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산 최대 체육축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은 생활체육을 향한 부산 시민들의 열정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스포츠 행사가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시민 간의 화합을 도모해 활기찬 도시 부산이 되기를 기대한다.



운영종목

검도, 게이트볼, 국학기공, 그라운드골프
배구, 배드민턴, 볼링, 족구
줄넘기, 체조, 축구,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당구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 경기결과

종합시상내역

구분	시상내역
종합우승	사하구
종합 2위	해운대구
종합 3위	연제구
성취상(1)	중구
질서상(3)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화합상(3)	영도구, 금정구, 부산진구
건강상(7)	중구, 서구, 동구, 동래구, 남구, 북구, 수영구
경기운영상(2)	탁구, 체조

종목별 결과

No	구분	우승	준우승	3위	장려
1	검도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기장군
2	게이트볼	남구	북구	동구	중구
3	그라운드골프	북구	금정구	사상구	동래구
4	족구	중구	사상구	금정구	영도구
5	줄넘기	금정구	남구	동래구	연제구
6	체조	해운대구	강서구	사하구	수영구
7	국학기공	연제구	사하구	해운대구	동구
8	탁구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영도구
9	배구	연제구	기장군	동래구	해운대구
10	테니스	부산진구	해운대구	강서구	남구
11	배드민턴	동래구	기장군	북구	사상구
12	당구	영도구	남구	연제구	해운대구
13	볼링	사하구	영도구	동래구	남구
14	축구	사하구	기장군	남구	해운대구
15	파크골프	사상구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16	태권도	사하구	기장군	연제구	부산진구



되짚어보는 2024 부산체육 ①

새로운 역사 만든 2024 부산 체육계를 돌아보다

글. 원성만



장인화 부산시체육회장은 “2024년은 25년 만에 개최하는 부산 전국체전 직전 연도로서 부산시체육회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올해 3월 5일 해운대구 아르피아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주최 ‘2024년 상반기 지방체육회 순회간담회’ 자리에서였다. 부산시체육회와 대한체육회, 구·군체육회, 종목단체가 한자리에 다 모였다.

장인화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체육회와 부산시체육회, 구·군체육회, 종목단체 모두가 멋진 파트너십을 발휘해 모두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자”고 했다. 2024년은 부산 체육이 모든 분야에서 한 걸음 더 성큼 동반성장한 해였다.



2024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로 지역 경제에도 활력

47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해 세계 최강 중국이 남녀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남자 단체전 동메달, 여자 단체전 8강으로 올림픽 단체전 출전권을 따냈다.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연계 행사도 함께 열렸다. ‘국제탁구연맹 회장배 유소년·생활체육대회’와 국제탁구연맹의 이사회 등 ITTF 서밋(SUMMIT)을 동시 개최했다. 입장권 판매 금액만 12억 원, 누적 관중이 3만 명에 달했다. 4강전과 결승전이 열린 24일과 25일에는 입장권이 매진되었다. 벅스코 인근 백화점 매출이 전년 대비 600%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6월에는 광안해변공원 특설경기장에서 전 세계 13개국 47명의 선수가 참가해 ‘2024 부산국제 장대높이뛰기경기대회’를 개최했다. 많은 비가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서 연제구청 육상팀 소속 진민섭 선수가 5m40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부산을 빛낸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린 제33회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종합 8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부산 출신 선수들의 활약은 눈부셨다. 8개 종목에 출전한 23명의 부산 선수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뤄 우리 국민과 부산시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안겨줬다.

동의대 출신 구본길 선수와 도경동 선수는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정상에 오르며 대회 3연패이자 한국 역대 300번째 하계 올림픽 메달을 따냈다.

‘서틀콕의 여왕’ 안세영 선수는 금메달을, 김원호 선수는 혼합복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둘 다 부산에 기반을 둔 삼성생명 소속이다. 부산을 연고지로 하는 KT사격 선수단의 박하준 선수는 금지현(경기도청) 선수와 10m 공기소총 혼성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영도가 고향인 부산체고 출신 김우민 선수는 자유형 400m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부산 연고 탁구팀인 한국거래소 임종훈 선수는 신유빈(대한항공) 선수와 팀을 이뤄 혼성 복식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부산 출신 선수들은 다양한 종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대표했다.



부산 체육, 새로운 역사 만든다 전국체육대회 8년 만에 종합 6위, 2년 연속 광역시 1위 달성 쾌거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등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부산시 선수단은 6개 종목 240명(선수 170명, 임원 70명)이 참가하여 금 8, 은 10, 동 14개를 획득해 종합 5위를 차지했다. 제21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종합 6위를 차지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렸다. 부산시 선수단은 49개 종목 1,794명(선수 1,147명, 임원 647명)이 참가해 총 187개(금 54, 은 51, 동 82)의 메달을 획득해 종합 6위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104회 전국체육대회 7위에서 한 계단 상승한 것이다. 부산시 선수단은 2022년부터 매년 종합순위를 한 단계씩 끌어올리며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종합 6위 달성은 2016년 제97회 대회 이후 8년 만에 이룬 쾌거다. 6대 광역시 중에는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부산시 선수단은 대부분 종목에서 선전했는데, 세팍타크로는 7년 연속 종합 우승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세우며 ‘세팍타크로 대표 도시 부산’ 신화를 썼다. 요트, 에어로빅힙합, 배드민턴에서도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조정은 종합 2위, 바둑과 산악은 종합 3위를 차지했다. 역도 김수현 선수, 핀수영 서의진 선수가 3관왕에 등극하는 등 모두 12명의 다관왕이 탄생했다.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5.25~5.28.)가 전라남도 목포 일원에서 열렸다. 부산시 선수단은 34개 종목에 1,144명(선수 711명, 임원 433명)이 참가해 금 16, 은 30, 동 47개 등 역대 최다의 93개 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일궜다. 수영에서 가장 많은 18개 메달을 따내며 돋보이는 성적을 거뒀다. 낙동중이 축구 남중부에서 17년 만에 우승하며 중등부 최강팀의 위력을 뽐냈으며 부산체중이 근대 3종 정상에 올랐고, 남녀 골프 단체전도 각각 금메달을 따냈다.



생활체육 더 쉽고, 편리하고, 즐겁게 즐기

부산지역 생활체육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으랏차차 부산 생활체육포털’이 7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사용자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서 우리 동네 생활체육시설과 생활체육 관련 최신 정보를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15분 생활권 내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체육 정보를 한데 모은 통합 정보망이다.

또한 2024년은 어르신체육대회(9개 종목, 1,500명 참가), 여성체육대회(7개 종목, 1,200명 참가), 전국생활체육대축전(35개 종목, 1,350명 참가) 같은 다양한 생애주기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한 해였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을 기반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외부 환경의 제약 없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한 새로운 스포츠 체험 공간인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가 지난 5월 금정체육공원에 문을 열었다.

부산 최대 규모의 범시민 생활체육 축제인 ‘제35회 부산시민체육대축전’이 10월 5~6일 이틀간 강서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렸다. 16개 구·군의 생활체육 동호인과 시민 5,000여 명이 참가해 16개 종목경기에서 대항전을 즐기며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생활체육 천국도시 부산’을 향한 열기를 쏟아냈다. 부산 사하구체육회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대한체육회 주관 성과평가에서 부산시체육회 전국 1위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성과평가에서 부산시체육회는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대한체육회 성과평가는 전국 229개 시·군·구체육회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을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해 순위를 매긴 것이다. 시민 만족도, 체육회 운영평가, 구성원 업무성과 등 체육회 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부산시체육회는 2020년 10위, 2021년 4위, 2022년 2위를 차지하면서 지난 3년간 계속해서 순위 상승을 유지해 왔으며, 2023년 전국 시·군·구체육회 성과 평가에서 마침내 1위에 오른 것이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부문에서는 90개 시·군·구 중 사상구체육회(2위), 사하구체육회(3위), 수영구체육회(5위)가 선정돼 부산시 3개 구체육회가 전국 상위 5위 안에 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부산시체육회와 구·군체육회가 상생의 파트너로서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되짚어보는 2024 부산체육 ②

2025년 부산 전국체전에 총력 기울여야

글. 유정환 국제신문 부국장



부산시체육회는 2024년 의미있는 한 해를 보냈다. 지난 10월 경남 김해 일원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인 6위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 5월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소년체전)'에서도 역대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 내실을 기하는 데도 앞장섰다. 부회장 및 이사 11명을 총원하는 동시에 공식후원사를 모집하는 등 재정 안정성도 높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부산시 체육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게 됐다.

전국체전 8년 만에 종합 6위 달성

올해 부산시체육회의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일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경남 김해를 중심으로 열린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역대 최고 성적과 타이 기록인 6위를 기록한 것이다. 종합 6위 달성은 8년 만이다. 특히 광역시 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에 올라 더욱 의미가 컸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산은 메달 187개(금 54, 은 51, 동 82)를 획득했고, 총점은 3만9608점에 달했다. 육상과 레슬링, 에어로빅·힙합이 나란히 금메달 5개로 효자 종목에 올랐고, 역도와 핀수영에서 4개, 태권도와 배드민턴에서 각각 3개의 금메달이 나왔다. 세팍타크로 종목에서는 7년 연속 종합(남·여고부, 남·여 일반부) 우승의 대업을 달성하기도 했다.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시와 시체육회, 각 회원 종목단체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당시 준결승에서 부산을 대표하는 야구부인 부산과기대와 경남고가 나란히 결승에 진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기사도 현장 취재를 위해 창원 일대에서 두 경기를 지켜봤는데 부산과기대는 영남대와의 준결승전에서 7회말 8-1 콜드승을 거뒀고, 경남고는 대구상원고를 4-2로 꺾어 결승에 진출했다. 이날 경남고 응원석에는 1, 2학년 학생과 학부모 등 200여 명이 찾아 열띤 응원전을 펼쳤다. 현장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응원전에서 경남고가 상대를 압도하면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왔다"며 분위기가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연세대, 전주고와 금메달을 놓고 한판 대결을 벌였으나 아쉽게 패배했다.



소년체전 역대 최다 메달(금 16, 은 30, 동 47개) 획득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전남 목포 일원에서 열린 '제53회 소년체전' 역시 새 역사를 썼다. 부산 선수단은 금 16개, 은 30개, 동 47개 등 모두 93개 메달을 획득해 2001년 부산대회 이후 역대 최다 메달 기록을 세웠다. 총 34개 종목에 1,144명(선수 711명, 임원 433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수영과 태권도 종목에서 활약이 두드러진 가운데 축구 남중부에서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펼쳤다. 종목별로는 수영이 금메달 6개 등 가장 많은 18개 메달을 수확하며 효자 종목 노릇을 톡톡히 했으며, 태권도도 금 2개, 은 1개, 동 9개 등으로 활약했다. 단체전에서도 축구 남중부 부산 아이파크 U15 낙동중이 대구FC U15 울원중을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소년체전 축구 남중부에서 부산이 정상에 오른 건 2007년 이후 17년 만이다. 이 외에도 부산체중이 근대 3종 정상에 올랐고, 남녀 골프 단체전도 각각 금메달을 수확했다.



부회장 1명, 이사 10명 등 신임 임원 확충

2024년은 부산시체육회가 부산체육 발전을 위해 뭉치 임원 확충에 공을 들인 한 해였다. 시체육회는 지난 7월 14일 신임 임원 11명(부회장 1명, 이사 10명)을 선임했다. 에스아이시스템 권봉재 대표이사가 부회장으로 선임된 가운데 이사로 > 박준형(박준형피부과 대표원장) > 배수필(티씨더블유라인 대표이사) > 이기봉(전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 조재호(부산시장애인아이스하키팀회장) > 안하나(동서대 입학부처장) > 신성재(서프홀릭 대표이사) > 이경춘(화진정공 대표이사) > 김태진(플러스시스템 대표이사) > 김민지(브이드림 대표이사) > 최호철(미래와 사람들 대표이사) 등 10명이 합류했다. 이들은 시체육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각종 행사 참여 등으로 체육회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체육회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동호인테니스대회 개최

부산시체육회가 직접 주관한 부산시체육회장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가 지난 10월 26~27일 부산 동래구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을 비롯한 9개 테니스장에서 개최됐다. 그동안 대한테니스협회나 지역 테니스협회가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회는 있었지만 체육회 차원에서 대회를 주관한 것은 첫 사례였다. 이와 함께 올해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부산대를 포함해 부산 관내 테니스종목 육성학교 9개 교에 운영지원금 5,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시체육회 본연의 역할인 스포츠 저변 확대 등에 적극 나선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전국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 17개 시·도 중 1위 기염

이러한 노력의 결과 부산시와 부산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지난 9월 발표한 ‘2023년 전국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에서 부산시가 17개 시·도 중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이 평가는 일반시민(수혜자) 만족도, 시·군·구체육회 운영평가, 구성원 업무성과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 검토된 결과로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체육회는 구·군체육회 생활지도자 역량강화를 위한 행정교육과 업무지도를 꾸준히 실시해온 결과 2020년 10위, 2021년 4위, 2022년 2위에 이어 2023년에는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부문에서는 전체 90개 시·군·구 중 상위 5개 구에 부산시 사상구체육회(2위), 사하구체육회(3위), 수영구체육회(5위)가 선정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냈다.

공식 파트너, 공식 스폰서, 공식 공급사 등 공식후원사 모집으로 재정 확보

부산시체육회는 임원 확충뿐 아니라 공식후원사 모집에도 적극 나섰다. 지방체육회 최초로 공식후원사 프로그램을 추진한 것이다. 체육회 자생력 강화를 통한 재정 자립도 향상과 각종 체육사업 확대로 부산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장 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프로그램이다. 업종별로 ▷공식 파트너(5000만 원 이상) ▷공식 스폰서(3000만 원 이상) ▷공식 공급사(3,000만 원 미만)로 구분해 후원을 받음과 동시에 후원사에는 그에 걸맞은 마케팅 효과를 제공해 윈-윈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와 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늘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2025년 부산 개최 ‘제106회 전국체전’ 준비 박차

부산시체육회는 2025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전국체전 폐회식에서 부산시 김광희 미래혁신부시장장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대회기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5일에는 ‘2024 부산체육진흥 세미나’가 열려 부산 전국체전 성공 개최와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대축전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을 비롯해 구·군체육회 임원 및 지도자, 체육회 실업팀 감독과 선수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소통의 장을 열었다. 장인화 회장은 “화합과 감동의 국민 스포츠 대축제인 전국체전이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범시민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체육인과 시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행복해지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아 스포츠 활동이 단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함께 소통하는 체육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부산 전국체전을 앞두고 체육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등 원활한 대회 준비가 이뤄질 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국체전은 전국의 스포츠 선수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대축제’로 부산의 시설만으로 전국체전을 치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는 시설, 운영, 시민의 관심이라는 3박자가 잘 어우러져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경남의 양산 김해 등 인근 지역과 협력해서 광역 수준에서 치러야 한다. 장인화 시체육회장은 그동안 부산시와 종목단체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에는 인접 지자체까지 소통의 범위를 확대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제2의 도시’라는 부산의 위상이 조금씩 흔들리는 이때 스포츠 분야에서부터 부산은 역시 다르다는 이미지를 전국에 심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부산의 각 종목단체들을 격려해 성적 향상을 일궈내면서도 공식후원사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김해 전국체전과 함께 2025년 부산 전국체전 유치를 확정된 장인화 시체육회장의 숨은 노력이 제대로 빛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산시와 각 종목 단체들도 25년간 축적한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는 대회가 되길 기대한다.



되짚어보는 2024 부산체육 ③

2024년 부산의 체육을 돌아보며

글. 김진성 부산일보 스포츠부장

2024년 부산 체육의 키워드는 ‘행복’이다. 스포츠를 통한 행복. 부산시체육회는 촘촘한 스포츠 복지로 행복 도시 실현을 비전으로 삼았고, 스포츠로 일상이 즐겁고 행복한 스포츠 천국 도시 조성을 목표로 세웠다.



올해 부산 체육은 ‘행복’했다.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역대급 흥행몰이에 성공하며 찬사를 받았다. 대회가 열리는 10일 동안 행복했고, 여진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전국체육대회에서 부산은 8년 만에 종합 6위를 탈환했고, 전국소년체전에서는 23년 만에 최다 메달을 따냈다.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는 17년 연속 종합 5위의 쾌거를 이뤘으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종합 6위로 선전했다.

특히 부산시체육회는 전국 시·군·구체육회 성과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운영과 성과 등 사업 전반에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성공적 마무리

2월 열린 세계탁구선수권대회는 전 세계에 부산을 ‘탁구의 메카’로 알리기에 충분했다.

10일간 열린 대회에는 47개국 2천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고, 3만여 명의 관람객은 수준 높은

경기에 환호했다. 입장권 판매 금액만 12억 원에 달할 정도로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개최는 쉽지 않았다. 당초 2020년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탁구 100주년을 맞은 올해 대회를 재유치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 특히 부산의 역량과 위상을 다시금 높였다.



전문 체육의 전성시대 도래

올해는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동계체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부산의 전문 체육이 전성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산은 10월 경남 김해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8년 만에 종합 6위'라는 쾌거를 일궈냈다. 부산 선수단은 총 49개 종목에 참가해 금메달 54개, 은메달 51개, 동메달 82개 등 모두 187개의 메달을 수확했고, 총 득점도 2016년 충남 대회 이후 8년 만에 최고인 3만 9,608점을 얻었다. 이와 함께 부산은 세종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 중 2년 연속 정상을 차지했다.

5월 전남에서 열린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부산 선수단은 23년 만에 93개(금 16개, 은 30개, 동 47개)의 최다 메달을 획득했다.

부산은 2월 열린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를 획득하며 17년 연속 종합 5위의 쾌거를 올렸고,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금메달 61개, 은메달 92개, 동메달 95개를 획득해 종합득점 12만 1,293점으로 종합 6위를 차지했다.

4월 울산에서 열린 2024 생활체육대축전에서 부산 선수단은 국학기공·그라운드골프·배드민턴·수중핀수영·우슈·체조 등 6개 종목에서 종합순위 2위, 수영·스쿼시·육상·철인3종 등 4개 종목에서 종합 3위에 오르며 선전했다.

안정된 재정 확보, 경기력 향상의 밑거름

올해 부산 체육의 선전은 선수와 코치진의 피땀 흘린 결과이기도 하지만, 부산시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체계적인 행정 운영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시행하는 '2024년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해 국비 9억 500만 원을 확보했다. 또 시체육회는 '2024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 1,75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특히 시체육회는 전국 지역체육회 중 최초로 공식 후원사 제도를 도입해 안정적인 재정 마련으로 경기력 향상은 물론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시체육회는 지난 9월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2023년 전국 시·군·구체육회 성과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내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부산 개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내년 부산에서 열린다. 2000년 제81회 전국체전 이후 25년 만이다.

전국체전은 내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82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이 열린다. 전국장애인체전은 내년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펼쳐진다.

시와 체육회는 지난 2월 '전국체전기획단'을 신설해 본격적인 체전 준비에 돌입했고, 시민단체, 장·재계, 언론·방송사 등 140여 명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도 꾸려졌다.



이들 대회가 열린다면 4만여 명의 국내외 선수단, 임원·가족, 관광객 등이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보여 '스포츠 천국 도시' 부산의 인지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은 앞으로의 부산 체육 방향과 성과에 많은 기대를 하게 했다. 올해 재정 확보와 사업 전반의 체계를 어느 정도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 국비 확보뿐 아니라 자체 사업소 확대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융합이 시대적 요구임을 얼마나 인식하고 실행하느냐에 부산 체육의 미래가 있다.

The background is a vibrant orange with dynamic, flowing lines in shades of yellow and orange, creating a sense of movement. Scattered throughout are various sized circles and bubbles, some with soft gradients, adding to the abstract and energetic feel.

2024 BSC

학 토픽

2024 부산체육 주요성과

2023년 전국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
부산광역시체육회 1위 달성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지난 9월 발표한 2023년 전국 시·군·구체육회 성과평가에서 17개 시·도 중 1위에 올랐다.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성과평가는 전국 229개 시·군·구체육회의 지난해 추진한 사업을 전문 평가 기관에 의뢰해 순위가 매겨졌다.

평가 부문은 ▷일반시민(수혜자) 만족도 ▷시·군·구체육회 운영평가 ▷구성원 업무성과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부산시체육회는 구·군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교육과 업무지도를 꾸준히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3년간 순위가 상승하여 2020년에는 10위에 해당했던 순위가 2021년 4위, 2022년 2위, 그리고 2023년 평가결과 당당히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부문에서 도시지역 전체 90개 시·군·구 중 상위 5개 구에 부산시 사상구체육회(2위), 사하구체육회(3위), 수영구체육회(5위)가 선정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위, 3위 700만 원, 5위 45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광역시체육회와 구·군체육회는 상생의 파트너로서 동반성장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시 체육회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했던 교육 등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부산 시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보급을 위해 현장 일선에서 노력하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환경개선과 양질의 스포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관내 스포츠팀 창단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초·중·고·대학 선수들을 연계 육성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하고 부산 출신 우수선수 및 유망선수의 지역 외 유출방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산 관내의 스포츠팀 창단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중 2024년에 창단한 팀을 소개해본다.

부산광역시체육회 롤러팀

종 목 롤러

인 원 선수: 이해원, 전주애



부산광역시체육회 사격팀

종 목 사격

인 원 선수: 서지수, 신현진, 이형주



부산외국어대학교 하키팀**종 목** 하키**인 원** 감독: 서종호선수: 이태섭, 주현대, 방한결, 송정원,
김단우, 서석준, 문우주, 이형주,
장현우, 윤영조, 우승범**한일고등학교 태권도부****종 목** 태권도**인 원** 지도교사: 신재현

지도자: 김현덕

선수: 김규리, 김단아, 이다영, 이정은

**신평장림체육관 신규수탁 운영**

2024년 5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신평장림체육관(이하 체육관)의 운영권을 수탁받았다. 체육관은 운영부장, 총무과장, 교육과장, 접수·안내·미화·시설·관리 사원, 수영 및 헬스 지도자, 수상안전요원 등 상근 직원 18명과 파트 강사 15명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165㎡ 규모로 2022년 2월에 착공, 2023년 12월 준공했다. 운동 시설은 크게 수영장 과 헬스장으로 나뉜다. 1층 수영장에는 최대 수심 1.4m, 길이 25m 레인 4개와 유아풀이 설치되어 기본 강습인 수영은 물론 이고 관절에 약한 고령자에 적합한 아쿠아로빅 강습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들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어린 이 수영 및 소그룹 수영강습도 기획했다.

2층 헬스장에는 트레드밀을 포함한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개인 건강관리 및 체력유지를 돕는 헬스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인 시간에 맞춰서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시간대에 운영한다.

체육관은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 덕분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수월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근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무 전후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함현용 신평장림체육관 운영부장은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은 시민 니즈를 파악해 프로그램 운영과 구성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이용객과 소통하겠다”고 운영 계획을 밝히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과 쾌적한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원 전원이 화합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공공체육시설 수탁운명을 통한 생활체육-전문체육 선순환 발전시스템 기틀 마련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2016년 부산시와 부산시생활체육협의회(현재 부산광역시체육회와 통합)의 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개폐식 지붕이 있는 형태로의 실내테니스장(사진)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건립 취지에 부합되는 관리·운영에 역점을 두고 공공체육시설로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마련으로 전문적인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인구 저변 확대와 전문체육 발전으로의 테니스 종목 선순환 보급과 건전한 여가 선용 테니스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부산시와의 위·수탁계약을 통해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되는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연면적 7,446㎡으로 10개 면의 코트와 관리동(사무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16년 11월부터 3년 단위로 관리·운영해오면서, 2023년도 기준 개인레슨회원 1,866명과 클럽회원 406팀, 일일입장 12,475팀이 이용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속적인 이용회원들의 증가로 지난해에는 테니스동호회 클럽에게 코트를 공정하게 배정하기 위하여 추첨식 코트 배정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보다 많은 운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으로 공공체육시설로는 전국 최초 금요일 야간개장(익일 2시까지)을 시행하여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울산 등 인근 지역 테니스 동호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에는 금요일~일요일까지 야간개장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해왔고, 그 결과 2023년도 결산을 통해 5억 4천만 원의 이익금을 확보하는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통해 테니스장 운영이익금을 다시 부산 테니스종목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2025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전국체전 불참종목 해소 및 추가 득점원 마련 등 전국체전 상위 입상을 위한 테니스 실업팀 창단과 ▲부산시 테니스 인프라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종목 저변확대를 위한 테니스 동호인 대상 전국대회 개최 ▲실내테니스장의 시설 특성상 발생하는 먼지비산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을 통하여 이용회원들에 대한 쾌적한 운동환경 마련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의 운영예산으로 이익금을 활용할 것으로 밝혔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이러한 결정은 공공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해 나가면서 발생한 이익금을 다시 해당 종목 발전에 투자해 나가는 아주 모범적인 운영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 부산체육 공모사업

지정스포츠클럽 대상 공모 사업
국비 9억 5백만 원 확보

지정스포츠클럽 국비보조금 2023년 대비 2억 1천 3백만 원 추가 확보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2024년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2023년 대비 2억 1,300만 원 증액된 9억 50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4년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및 전문선수반 지원 사업」 공모는 전국 17개 시·도 131개 지정스포츠클럽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부산은 총 7개 지정스포츠클럽, 31개 프로그램(특화프로그램 25개, 전문선수반 6개)을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시민들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높이고 생활·전문체육 연계 육성 등을 위해 공공·지정스포츠클럽과 상호 협업한 결과로써 2024년 영도구스포츠클럽, 부산태권도스포츠클럽의 지정스포츠클럽 승격과 더불어 2023년(6개 지정스포츠클럽, 25개 프로그램 지원) 대비 6개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 지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선정된 스포츠클럽에는 특화프로그램 각 연 2,500만 원, 전문선수반 프로그램은 우수반 연 6,000만 원, 심화반 연 4,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지역 체육 활성화와 함께 더 나은 스포츠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체육회도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부산체육 발전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 사업
국비에산 확보

부산광역시체육회는 「2024년도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억 1,75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공모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191개 단체 546개 팀이 신청하여 총 53개 단체 292개 팀이 선정되었다. 국비 예산 30% 삭감에도 불구하고 신청 사업 예산 95%를 확보하였으며,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20개의 실업팀(위탁운영팀 포함)이 지원받게 됐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국비 확보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의 사기 진작과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2025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는 확보한 예산을 각종 대회에서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비 및 용품 구입, 전지훈련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2024 부산체육 지원

‘2024년 과학적 스포츠영재 육성사업 운영 주체 공모’
사업 선정

7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추진하는 ‘2024년 과학적 스포츠영재 육성사업 운영 주체 공모’ 사업에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비등록 스포츠 영재 발굴 및 육성을 통하여 엘리트 스포츠 발전 및 선수층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부산 지역 초등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우수한 잠재력을 갖춘 꿈나무 발굴을 위해 체격, 체력, 운동 기능 평가 및 스포츠 적성검사를 통해 최종 30명의 스포츠영재를 선발하여 스포츠과학영재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기초종목(육상, 수영, 체조) 육성 실기 및 이론(스포츠 역사, 인성, 스피치 등), 스포츠 이벤트 참가, 전문 스포츠 체험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해양스포츠를 비롯한 다양한 종목체험, 학부모 교육, 견학(진천국가대표선수촌, 국가대표과학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스포츠과학센터는 최신식 측정시설과 최고의 전문 인력 및 스포츠과학적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산 지역의 우수한 잠재력을 갖춘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고 부산 지역 유관기관(교육청-회원종목단체-대학-스포츠클럽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적인 스포츠과학영재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꿈나무 선수층 저변 확대 및 전문 선수로서 발전 가능성의 확대를 꾀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스포츠과학영재 육성 사업은 뿌리가 튼튼한 부산 지역 미래 체육 인재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외에도, “부산 지역 체육 경쟁력 강화 및 엘리트 스포츠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한얼고등학교 태권도 품새단 창단 지원금 전달

부산광역시체육회는 4월 11일(목) 부산광역시체육회관에서 한얼고등학교 교장 한효섭에게 태권도 품새단 창단 지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앞서 한얼고등학교는 지난 3월 21일(목) 학교 세종꿈터에서 부산 지역 최초로 고등부 태권도 품새단 창단식을 개최하였다. 태권도 품새종목은 겨루기, 발차기, 찌르기 등 공격과 방어기술을 수련하는 무술이며, 2024년 105회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종목으로 전환되었다.

한얼고등학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교운동부를 창단하여 부산 체육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부산 지역 고등부 우수선수 육성 및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한얼고등학교 태권도 품새단 창단으로 부산 지역 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 창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거래소, 부산 지역 체육꿈나무 장학금 6천만 원 전달

한국거래소는 지난 11월 13일(수)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부산 지역 체육꿈나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6,000만 원을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인화 부산광역시체육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거래소가 2021년부터 추진하는 이 사업은 어려운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부산 지역 체육꿈나무를 미래 체육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시작한 장학사업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는 학생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 선수 등에게 지원한다.

올해에는 한국거래소 소속 탁구선수 임종훈 선수가 학생 탁구선수를 위한 특별장학금 1,000만 원을 후원하며 후배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선수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2024 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 성료

부산광역시체육회는 미래의 체육인재 육성과 꿈나무선수들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7월 24일(수) 부산시체육회관에서 「2024 부산체육꿈나무우수선수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장학금은 2024년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입상자 및 전국대회 입상자에게 1인당 1백만 원을 수여하는 꿈나무 우수선수 장학금과 2023~2024년 전국소년(동계)체전 2연패 달성 선수와 2024년 전국소년체전 다관왕(금메달 2개 이상) 선수에게 1인당 3백만 원을 수여하는 꿈나무 MVP 장학금을 신설하여 26개 종목 초·중학생 142명에게 총 1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부산광역시체육회의 꿈나무육성사업은 2009년 전국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장학사업의 결과로 부산선수단은 전국대회에서 꾸준한 성적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올해 전국소년체전은 2001년 제30회 전국소년체전 이후 23년 만에 최다 메달을 획득하고 축구 종목 남중부에서는 17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 육상 높이뛰기 종목 여초부에선 11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105회 전국동계체전에서는 꿈나무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17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하며 꿈나무 선수들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교육감 및 시 관계자, 장학생과 학부모 및 지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장학증서 수여와 함께 미래 체육인의 꿈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장학금이 선수들의 열정과 노력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부산시체육회에서도 꿈나무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별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운영이익금 활용 테니스종목 전국 동호인 대회 및 관내 테니스 육성 학교 운영지원금 전달

2024 부산광역시체육회장배 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가 10월 26(토)~27(일)일 부산 동래구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을 비롯한 9개 테니스장에서 개최되었다. 부산시체육회가 직접 주관한 테니스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라 대회에 특히 많은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신인부, 남자오픈부, 개나리부, 국화부로 진행되었으며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참여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남자부는 전국 대회 비입상자를 대상으로 신인부에 150팀 300명이 참가했으며 여자선수는 전국대회 비입상자가 참가하는 개나리부에 150팀 300명이, 개나리부 우승자를 대상으로한 국화부에 64팀 128명이 참가했고 응원단 포함 총 800여 명의 인파가 한자리에 모였다.

대회는 다양한 연령대와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여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다. 예선부터 본선까지 이어지는 치열한 경기에서 참가자들은 서로의 기량을 확인했고 관중들도 손에 땀을 쥐며 경기를 지켜보았다. 응원석에서 보내는 열렬한 응원 속에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다.

이날 대회 전국 신인부에서는 부산 동호인 홍승완(하나클럽)·김해진(STC클럽) 조가 우승을 따냈고 여자 개나리부에서는 대구 동호인인 정은주(대구퀸)·주건영(파스텔) 조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대회 참가자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인 테니스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우애를 돈독히 한 이번 대회를 통해 테니스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며 대회를 개최한 부산시체육회와 대한테니스협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 앞서 부산광역시체육회는 관내 테니스 육성 학교에 운영지원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지원금은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에서 발생한 운영이익금을 활용했다.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수탁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여타 체육시설이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에 상당 부분 의존하여 운영되는 것과 달리 적극적 홍보화 효율적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왔다.

운영지원금은 2024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부산대학교를 포함한 관내 테니스종목 육성학교 9개교에 총 5,000만원이 전달됐다.

행사에 참석한 테니스 동호인들은 “지역사회 테니스 발전에 직접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부산광역시체육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운영지원금이 부산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엘리트 테니스 선수의 육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치는 한편 동호인 대회를 개최해준 부산광역시체육회에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장인화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을 수탁관리·운영함에 공공체육시설로는 최초로 주말(금~일) 야간개장(익일 2시까지)을 시행하여 동호인들에게 보다 많은 운동기회를 제공, 무더운 여름시즌을 대비하고, 먼지비산 방지 효과를 위하여, 전국 테니스장 최초로 쿨링포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동호인들의 운동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공공체육시설 수탁운영의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체육회 - ㈜어썸스타 공식후원사(Sponsor) 업무협약 진행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0월 2일(수)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스포츠 의류브랜드 ㈜어썸스타와 공식후원사 업무협약을 진행하였다.

이 협약은 체육회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지방체육회 최초로 운영되는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 후원 프로그램으로, 각종 체육 사업 확대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 부산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체육회는 공식 스폰서에 준하는 마케팅 권리 등을 후원사에 제공하며, 후원사인 ㈜어썸스타는 체육회에 기능성 운동복 등 3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후원할 예정이다. 상호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중량이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의 협력사 물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여 경기력 향상 등에 상당 부분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서, 서로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여 이루게 될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부산체육 발전과 미래 스포츠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식 후원사에 동참하는 후원사에게 다양한 마케팅 권리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홍보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 하이커우시 청소년스포츠교류 MOU 체결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지난 18일 중국 하이커우시와 청소년 스포츠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하이커우시와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엘리트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전지훈련 유치 및 종목별 스포츠 교류 대회 개최이며, 그동안 일본 후쿠오카시와 지속적인 스포츠 교류를 해왔으나 학생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다양한 국가와의 스포츠 경험을 위해 아시아 국가 중 스포츠 강국인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선수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함께 경기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양 도시의 문화 탐방을 통해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중국 하이커우시는 중국 대륙 최남단으로서 1983년부터 중국 국가 해양종목 동계훈련기지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트, 축구 등 우수한 체육시설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MOU를 체결한 하이커우시와의 정기적인 교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며, 나아가 다른 국가 및 도시와의 스포츠 교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ww.busanaircruise.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파트너



송도해상케이블카 부산에어크루즈

볼수록 새로운 바다! 갈수록 색다른 재미! 탈수록 즐거운 송도해상케이블카
하늘과 바다를 가로지르는 감동, 생생한 테마와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스카이하버 전망대



다이너소어드벤처



어린이왕자



어린이왕자 비행기



소원의 왕



모멘트 캡슐

문의전화 051)247-9900



BUSAN AIR CRUISE
송도해상케이블카

DaewonPlus Group
대원플러스그룹



AP-01 라운드 긴팔 BLACK
SS 숏스탑 반바지 BLACK

부산광역시체육회 공식스폰서



프로 선수의 스포츠웨어, 어썸스타

KEEP GO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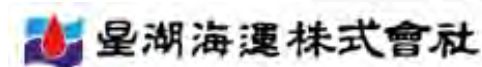
롯데디자인츠 선수

No.21 박세웅

<https://awesomestar.co.kr/>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



문화예술로 쌓아온 57년 부산은 행복합니다

문화로 웃음을 키웠습니다
예술로 일상을 빛냈습니다

부산의 행복이 문화예술로
더 커질 때까지
지난 57년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BNK가 함께 가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이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행복온도°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도시가스는 '함께'의 세상을 실현합니다.
사람으로 향하는 따뜻한 길
부산도시가스가 행복온도(溫道)를 만들어갑니다.

부산도시가스 | SK 이노베이션 E&S

사회적 약자를 위한 노력

- 행복도시락 (2007~)
- 사랑의 김치나눔한마당 (2011~)
-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독사 예방 (2020~)
- 사회적 약자보호 업무협약 (2022~)

보편적 에너지복지를 위한 노력

- 에너지소외계층 안전점검 및 CO경보기 지원 (2007~)
- 복지시설 노후 가스기기교체지원 (2015~)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 착한에너지학교 (2011~)
- 행복한 에너지 동행 (2023~)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지원 서비스

부산 스포츠과학센터는 국가대표 선수에게 한정되었던 스포츠과학지원 시스템을 적용하여 부산지역 전문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부산광역시 선수들의
꿈을 향한 도전!

부산스포츠과학센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체력측정 및 분석

- **기초체력**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측정
- **전문체력**
운동부하검사(호흡가스 분석)
젯산분석, 등속성 근관절 기능
무산소성 운동능력 평가

생체역학측정 및 분석

- 영상분석(자세분석/전술 및 기술 특성) 및 족저압분석
- 근전도를 통한 근육동원 패턴 분석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 선수 데이터관리 시스템 운영
- 체력수준 진단 및 개인별 운동처방 제공
- 개인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제공

스포츠과학교실

- 스포츠과학 이론의 이해도 제고 및 현장적용 교육
- 스포츠윤리, 도핑, 부상예방 및 진로 교육
- 스포츠 영양 교육

스포츠심리지원

- 심리프로파일 분석, 심리훈련 및 상담

찾아가는 현장밀착지원

- 체력강화 및 운동기술 전문가 현장지원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심리, 정신력 강화 프로그램 제공
- 훈련영상 촬영 및 종목별 필드테스트 제공

스포츠헬스케어센터 운영

- 부상예방·회복 및 경기력 향상 훈련 프로그램 제공
- 전문 트레이너와 1:1 훈련 진행